AI 토큰으로 새 수익원 찾는 통신업계… '실효성' 시험대

통신 3사, AI 토큰 사업 진출
토큰 비용 낮추기만으론 한계
성과 기반 과금하는 방식도 주목

통신업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 토큰 서비스'를 낙점했다.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온 기존 통신 사업과 닮았다.

다만 과금 사업이 곧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고객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최근 'AI 토큰'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삼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토큰은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처리할때 자연어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토큰 사용량은 AI 모델의 추론 비용과 직결된다.

이에 통신 3사는 비용 절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KT가 지난 30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한 AI 토큰 플랫폼 '토큰팩토리' 서비스는 최적의 AI 모델을 찾아주고 그에 따른 토큰 비용을 과금한다.

앞서 '토큰 게이트웨이' 사업 구상을 발표한 SK텔레콤도 향후 엔비디아와 추진하는 'AI 팩토리' 등 그룹 내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 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또한 그룹사와 스마트폰 환경에서 AI 토큰 최적화 기술 연구를 지속하며, 서비스 확장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고객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존 데이터 과금 사업 모델은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유료로 제공한 것에서 부터 시작했다.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실익이 증명되면서 수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KT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토큰팩토리 사업 계획에서 주된 수익 모델이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모델에 부가서비스를 더한 상품 구성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대표 AI 모델 7종을 사례로 들었다.

토큰당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에 최고 성능의 AI 모델이 존재하는 이상 가격 경쟁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이 토큰 요금제를 사용해 창출한 성과를 기반으로 과금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시에라는 토큰이 아니라 업무 결과에 따라 지불하는 성과 기반의 모델을 운영 중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경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서비스의 과금 방식은) 과업과 성과 등 다양한 단위로 가격을 제시하는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배우는 속도, 입소문도 남달라… 한국서 가능성 확인"

빛나는 인터뷰

마 주 연 듀오링고코리아 대표

높은 서비스 이용률·빠른 진도 주목
캐릭터 '듀오' 활용, 학습 참여 유도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를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빨리 떠나거든요. 그런데 듀오링고는 달랐어요.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서비스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마주연 듀오링고코리아 대표는 최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와 라인, 넷플릭스, 게임업계 등을 거치며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한 그에게도 한국 이용자들의 듀오링고 활용 방식은 특별했다.

마 대표는 "한국 이용자들은 일간 활성 이용자(DAU) 지표가 높고 학습 진도도 굉장히 빠르다"며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익히고 친구들에게 추천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확산하는 속도 역시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주연 듀오링고코리아 대표가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듀오링고의 캐릭터를 소개하다. /메트로경제신문

듀오링고는 언어 학습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다. 무료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광고와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에는 언어를 넘어 수학과 음악, 체스 등으로 교육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초록색 부엉이 캐릭터 '듀오'를 활용한 독특한 소통 방식은 듀오링고의 강점이다. 학습하지 않으면 이용자를 재촉하는 알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유행하는 춤을 추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마 대표는 "앱 안에서는 학습을 격려하지만 앱 밖에서는 '너희가 공부하러 오지 않으니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전략"이라며 "복귀 혜택을 내세우기보다 사람들이 웃다가 자연스럽게 듀오링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듀오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용자들이 알림을 캐릭터가 직접 보내는 메시지처럼 받아들이면서 듀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전했다.

듀오링고가 최근 공을 들이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특히 AI 캐릭터 '릴리'와 외국어로 화상 통화를 하는 기능은 기존 회화 교육과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마 대표는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문법을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는다"며 "틀릴 때마다 위축되면 결국 말을 하기 싫어진다. AI와의 대화에서는 그런 부담을 줄여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
AI 탭 국제표준 인증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탭'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 AI 탭은 이용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는 멀티턴 대화와 개인화 기능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예약과 구매 등 실제 행동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AI 검색 서비스다.

네이버는 AI 기반 검색과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탭'이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2023'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분야 최초의 국제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AI 시스템의 개발과 제공, 운영 과정에서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보안, 윤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대규모 이용자가 사용하는 검색 기반 에이전틱 AI 서비스에 대해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네이버는 AI 탭의 검색부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를 제3자 검증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 특히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 두 영역 모두 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빛나 기자

NC AI, 로봇 시각 인식 '배키 비전3B' 개발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NC AI가 로봇과 산업용 장비의 시각 인식을 지원하는 초경량 시각·언어모델(VLM) '배키 비전 3B(VAETKI Vision 3B)'를 개발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NC AI는 제한된 연산 자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간 인식과 추론이 가능한 경량 멀티모달 모델 '배키 비전 3B'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배키 비전 3B는 로봇과 산업용 엣지 디바이스에 직접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30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이다. 주변 환경과 물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시각·언어·행동(VLA) 모델과 월드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NC AI에 따르면 배키 비전 3B는 로봇 및 공간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다중 이미지 공간 지각(BLINK), 체화 추론(ERIQ), 체화 공간 추론(ERQA) 등 3개 평가의 평균 점수는 일반 응답 모드 기준 6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큐웬3-VL 등 주요 글로벌 공개 모델 6종을 웃도는 수치다.

산업 현장에 특화된 영상 분석 기능도 갖췄다. 배키 비전 3B는 비디오 입력 시 4초 동안의 8개 프레임을 동시에 분석해 로봇의 움직임과 작업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한다.

/최빛나 기자

SKT, 사내 AI 에이전트 발굴해 업무 혁신

경연대회 우수작 5건 선정

SK텔레콤은 3일 임직원 대상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평가 경연대회 'AX 스파크' 파이널 행사를 열고 최종 우수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텔레콤 임직원이 직접 개발해 사용 중인 AI 에이전트를 발굴 및 검증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행 프로젝트다.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간 출품된 에이전트(173건) 중 매달 예선을 거쳐 우수작 20건을 선정했다. 통신(MNO CIC), 인공지능(AI CIC) 사업 담당 등 전사 조직이 참여했으며, 외부 심사위원 및 구성원 투표 등을 통해 최종 후보 5건을 추렸다.

이날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시상식에 참석한 가운데, 대상은 통합보안센터의 '엠-트리플A'가 차지했다. 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분석해 공격 서버를 자동 추적하는 에이전트다.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3일 열린 'AX 스파크' 행사에서 최종 후보 팀들의 발표를 듣고 심사평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이어, 최우수상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AT/DT) 센터의 '아틀라스'와 네트워크센터의 '파일론'이 뽑혔다. 해당 에이전트는 각각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전국 18만여 통신설비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우수상은 SK텔레콤의 AI 모델인 에이닷 사업 담당의 '오토 LLM 저지', 'AI 서비스 운영 에이전트'에게 돌아갔다.

/조민선 기자

LGU+, 서울여대와 보안 인재 양성 협력

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협약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서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통신 데이터를 비롯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결합 전후로 개인이 다시 식별될 가능성을 분석해 데이터 활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민감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가명처리하는 기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한다.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by 디자인' 적용 방안도 공동 연구해 향후 실제 통신 서비스에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오른쪽)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공동연구와 함께 미래 보안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은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해 교과과정 자문과 캡스톤 프로젝트, 공동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 전문가와 연구진은 강의와 대학원 논문 지도 자문, 현장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